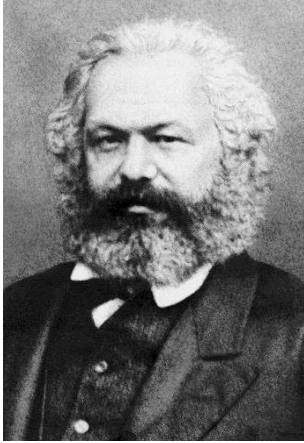


## 제2강 탈근대 이전의 자본주의와 노동정치 II

(1교시)



### 칼 마르크스

#### ▲ 맑스와 노동

- 인간은 자신의 삶을 생산하는 존재이다.
-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깊이 소외된 노동으로 전화한다.
- 노동자 해방이 인간해방의 계기이다.

▲ 주요 키워드: 삶, 생산, 생산관계, 노동, 소유, 국가, 소외, 그리고 노동해방

[텍스트.1]

- 인간의 보편성은 자연전체를 인간의 비유기적 신체로 삼는 총괄성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연전체는 1) 직접적 생활수단이기도 하고 2) 인간의 생명활동을 위한 물질·대상·도구이기도 하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다.(칼 맑스, 『경제학-철학수고』, 이론과실천, 60쪽)

(2교시)

— 생산적인 삶이란 곧 유적 삶이다. 그것은 생명을 산출하는 삶이다. 종의 전체적 성격, 곧 종의 유적 성격은 생명활동의 행위이다. 자유로운 의식을 갖고 있는 활동은 인간의 유로서의 성격이다. 삶 자체는 오직 삶 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61)

— 노동의 대상은 인간의 유적 삶의 대상화이다. 인간은 지성을 통해 자기를 이중화하여 자기 자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직관할 뿐만 아니라(의식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활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자기를 이중화하여 자기 자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직관하기도 한다.(62)

— 만일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해 낮은 권력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일은 오직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 바깥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으로써만 성립된다. 만일 노동자의 활동이 노동자에게 고통이라면, 그 활동은 다른 사람에게는 향유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에 대해 이처럼 낮은 권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신들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오로지 인간자신일 뿐이다.(64) ...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획득하는 노동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획득이 소외로서 나타나고, 자기활동이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과 다른 사람의 활동으로서 나타나며, 생동성이 생명의 희생으로서 나타나고, 대상의 생산이 낮은 권력 곧 낮은 인간에 의한 대상의 상실로 나타난다.(68)

— 인간은 소외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인 낮은 권력으로서의 대상과 생산행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산출하기도 한다.(65) ... 사적 소유가 외화된 노동의 근거 혹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의 결과라는 점이 밝혀진다.(65)

— 사적 소유에 대한 소외된 노동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사적 소유 등등 곧 노예상태로부터의 사회해방이 노동자 해방이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자 해방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해방 속에 보편적인 인간해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인간해방은 노동자 해방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노예상태는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노예관계는 이러한 관계의 변용이요 그 귀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66~7)

[텍스트. 2]

인간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와는 독립된 특정의 제 관계 속에 들어간다.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제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구조를 형성한다. 이것

이 실제적 기초인 바, 이 기초위에 하나의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한 이 기초에 대응하여 일정한 제사회의식의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및 정신적 생활과정 일반을 제약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제력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를 경우, 이때의 생산제력은 기존의 생산제력관계 및 그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 되기에 이른다. 생산력의 발전형태들로부터 이러한 생산관계는 생산을 구속하는 질곡으로 변한다. 이리하여 하나의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다소간 급격하게 변혁된다.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할 때 우리는 언제나, [i]자연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 변화와 [ii]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태, 즉 인간이 이러한 대립을 의식하게 되는 터전이자 또한 싸움으로 이 대립을 관철해 나가는 곳이기도 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들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개인에 관한 여타 사람들의 의견은 그 개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내용 여하에 그대로 의거하고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변혁시기를 그 시기 자체의 의식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의식은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 곧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현존하는 갈등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사회편성체도 모든 생산력이 그 안에서 발전할 여지가 있는 한, 결코 발전의 완료 이전에 멸망하지 않는다. 또한 보다 높은 새로운 생산관계는, 이것의 물질적 존재조건들이 구 사회의 태내에서 성숙하기 이전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자기에게 제기한다. 왜냐하면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 생성과정에 있을 경우에만 문제 그 자체가 등장하는 것을 항상 알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말해서 우리는 경제적 사회 편성체의 진보에 따른 여러 단계를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및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양식들로 특징 지워볼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들은 사회적 생산과정의 최종적인 적대적 형태인 바, 여기서 적대적이라 함은 개인적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조건들에서 발생하는 적대적 형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자기 발전하는 생산제력은 동시에 이 적대의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 편성체는 인간사회의 전사적 단계를 끝맺는 장을 이루고 있다.

#### ▲ 노동정치

경제와 정치의 분리 하에서의 노동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통해 지배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때 노동은 경제적 생산의 영역에 억제된다.

#### ▲ 노동의 정치화

— 노동계급의 저항은 경제적 생산의 영역에서 출발하지만 투쟁이 진전할수록 자신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경제적 생산의 영역 외부로까지, 즉 정치라는 영역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 좌파정치는 노동계급의 정치화 경향을 대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탄생하여 자신의 국가권력 장악을 노동계급의 국가권력 장악과 동일한 것으로 제시한다.

▲ 노동정치의 전개와 그 이행의 계기들

노동의 정치

- 맑스의 노동정치
- 레닌의 노동정치
- 평의회주의 경향들
- 오페라이스모(Operaismo)

▲ 노동정치에 대한 비판의 대두

- 1968 혁명
- 상황주의 운동과 구성
- 여성운동과 '가사노동에 임금을'
- 자율주의 운동과 노동거부

▲ 포스트모더니즘과 탈노동의 정치: 시뮬레이션

- 보드리야르: 『생산의 거울』
- 네그리: 노동거부에서 비물질적 노동으로
- 마이클 하트-안토니오 네그리: 『디오니소스의 노동』

▲ 노동정치와 삶 정치의 관계

- 근대에 삶 정치는 노동정치에 종속된 노동정치의 조건이었고 탈근대에 그것은 노동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형상으로, 오히려 노동정치를 포괄하는 형태로 역전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치의 새로운 평면, 절대적 내재성의 평면이다.

※ 예고: 3, 4강은 버추얼리즘의 문제를 잉여가치화와 자기가치화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  
참고문헌: 조정환, 『아우또노미아』, 갈무리, 2003, 제2장 「가치화의 두 계열: 자본의 잉여가치화와 노동의 자기가치화」(69쪽~114쪽)

(보충)

#### 노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용

질 들뢰즈, 『시네마-1』, 시각과 언어, 2002

— 전체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인 이유는 전체가 ‘개방성’이며 그 속성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솟아나게 하는, 다시 말해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지속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창조의 넓이와 같은 것이다.”(24)

— 운동은 지속 혹은 전체 안에서의 변화를 표현한다. ... 우리의 오류는 운동하는 것이 특질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불특정한 요소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특질들조차도 이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운동과 동시에 변화하는 순수한 진동들이다.(22)

— ‘실제적 운동→구체적인 지속’이란 지속하는 어느 한 전체의 열림을 가리킨다. 이 때 이 전체의 운동들이란 닫힌 체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동적인 단면들이다.(26)

—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1) 판별될 수 있는 대상들이나 구분되는 부분들로서 정의되는 폐쇄집합들 또는 체계들 2) 이 대상들 사이에 성립하며 그 각각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이동운동 3) 자체의 고유한 관계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적 정신적 현실로서의 지속 또는 전체(26)

— 운동은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의 변화를 표현하며 운동 그 자체가 지속의 동적인 단면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질과 기억』 1장의 그 심오한 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즉각적 이미지들, 즉 운동의 ‘부동적 단면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 시간적 지속의 동적인 단면들인 ‘운동-이미지’들이 있다. 3) 마지막으로 운동 말고도 그 너머에 시간-이미지, 즉 지속-이미지와 변화-이미지, 관계-이미지, 부피-이미지 등등이 있다.(27)

쉬잔 엠 드 라코트, 『들뢰즈: 철학과 영화』, 열화당, 2004

— 물질은 상호관계에 있는 작용과 반작용들인 운동-이미지들의 세계이며 ‘이미지들의 총체’이다.(14)

— 순간은 운동의 움직이는 단면이며 운동은 지속의 움직이는 단면, 즉 전체 혹은 하나의 전체의 움직이는 단면이다(17)

—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운동-이미지는 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이미지이고 시간-이미지는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이미지라는 데에 있다. “역전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이다. ... ‘빔장에서 풀려난 시간’. 시간은 자신에게 세계 안에서의 행동들과 세계의 운동들을 설정해 주는 빔장에서 풀려난다. 이것은 더 이상 운동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시간이다. 감각-운동적 상황→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이미지의 관계는 위치를 확정지을 수 없는 순수하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상황→직접적인 시간-이미지의 관계로 대체된다.”(19)

— 시간은 운동을 통해 사유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미지는 시간을 운동에 종속시킨다. 반면 시간-이미지는 시간을 운동에 대한 사유 이전에 위치시킨다.(20)

— 들뢰즈가 감각-운동 도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운동-이미지를 특징짓는다. 이는 하나의 시각 이후에 운동적인 반작용이 뒤따르고, 이 둘 사이의 간격(느)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시간-이미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미지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 즉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20)

— 시간에 대한 간접적인 재현(운동-이미지): 시간의 직접적인 드러남(시간-이미지)(21)

— 시간-이미지는 운동의 부재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의 역전을 함축한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운동에 종속되지 않고, 운동이 시간에 종속된다.(21)

—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로의 이행이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공간화해 있는 이미지에서 연장적인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유되는 시간에 대한 순수한 이미지로의 이행이다.

— 들뢰즈는 시간-이미지를 특징짓는 것은 운동-이미지에서처럼 필연적으로 세계의 공간과 상관적으로 전개되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비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순수시간이며 초형적인 형태의 시간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두 개의 커다란 범주가 나온다. 하나는 운동과 공간화한 시간을 참조해서만 측정될 수 있는 연대기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지만 재현되지 않는, 시간 이미지 고유의 순수시간이다.(23)

— “시야심도에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으며 그러한 기능들은 직접적인 시간-이미지 안에서 서로 결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시야심도의 특징일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에 운동에 종속되는 것을 역전시키고 시간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시야심도의 특성일 것이다”(24)

— 운동 이미지에는 지각-이미지perception, 정서-이미지affection, 행위-이미지action라는 세 개의 변이태가 있다. 그런데 정동-이미지와 행동-이미지 사이에 네 번째 이미지로 일종의 매개적인 충동-이미지impulsion를 추가할 수 있다.(25)

— 순수하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상황들: 시각기호들(opsignes)과 청각기호들(sonsignes). 이러한 기호들은 행위들로 이어지지 않고, “시간, 사유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시간의 순수한 나타남이다. 시각기호들과 청각기호들은 시간과 사유

를 감각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27)

— 운동은 비정상적인 운동이 된다.… 비정상적인 운동은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운동에 비해 근본적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운동-이미지 이후에 시간-이미지가 등장하지만 비정상적인 운동은 이상하게도 기원으로 나타난다.(27) 각동percept, 정동affect, 충동(impulse), 행동act

— 이러한 전환점을 최대한의 힘으로 영화의 본질을 드러내는 정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부재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일 뿐이었던 시간-이미지와 사유-이미지의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질 수 있기 위해서 도달해야만 하는 역사적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 시간은 연속적이기 전에 이질적이다. 시간의 흐름(chronologie)은 오로지 경험적인 형식, 시간이 재현되는 방식을 뿐이다.(46)

— 운동-이미지와 시간-이미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유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들은 실제로 끊임없이 여러 차원에서 증식하는 하나의 동일한 이미지의 두 계기이자 상이한 두 측면이기 때문이다.(80)

— 운동-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는 하나의 동일한 내재성의 평면 위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운동-이미지에서 시간-이미지로의 이행은 평면의 고유한 변화에 상응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이 두 계열들을 조직화하는 원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연속이 아니라 이미지들에 고유한 내재성의 평면 한 가운데에서의 변화나 변형의 효과로서 제시된다. 시간-이미지들은 ‘운동 자체의 너머에’ 존재한다. 운동-이미지에 상응하는 내재성의 평면은 열려 있는 것이고 이 사유의 이미지는 베르그송적인 지속과 혼합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매개로 시간을 사유하게 한다. 영화에 의해 생산된 운동-이미지들은 오직 우리가 그러한 사유의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 시간-이미지들의 출현과 더불어, 내재성의 평면은 변형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열려 있는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과 관계한다. 내재성의 평면의 구성적 무한은 더 이상 지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 안의 사유되지 않는 것’ 안에 있다.”(107)

— 우리는 시간-이미지가 내재성의 진정한 형상이고 따라서 시간-이미지는 운동-이미지의 이후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간-이미지는 운동-이미지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매개도 없이 시간의 솟아오름을 직접적으로 보게 해 주는 것은 시간-이미지이다. 그리하여 시간-이미지는 내재성의 진정한 형상이고 사건의 진정한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미지들은 시간-이미지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자들, 모든 시물라크르들은 내재성의 지배 하에서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108)